

천주교 광주대교구 5·18 기념행사 다채

14일 살레시오고~5·18민주묘지 도보순례 17일 학술심포지엄·기념미사·촛불행진 등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을 맞아 도보 순례와 기념 미사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먼저 14일 오전 8시30분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에서는 5·18정신 계승을 위한 도보 순례 및 추모미사가 열린다.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도보 순례는 살레시오고를 출발해 국립 5·18민주묘지까지

9km를 걸으며 5·18의 정신을 되새긴다.
올해는 특히 전국 수도회 남녀장상연합회를 초청해 5.18의 역사와 정신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전국 수도회에서는 15일 국립 5·18민주묘지 5·18 기록관, 옛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5·18 정신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오후 2시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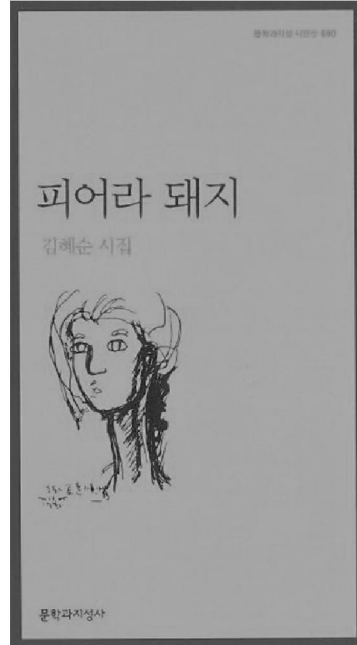
는 5·18 학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광주 가톨릭대 김영선 수녀가 '출애굽공동체와 5·18 공동체 비교'를 발표하고 전남대 박구용 교수는 '5·18과 광주 인권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오후 7시에는 광주 남동성당에서 5·18 광주민주항쟁 37주년 기념미사가 열린다. 기념 미사는 '5·18 기억과 식별'을 주제로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의 미사 주례로 열린 예정이다.
미사 후에는 급남로 5·18 민주광장까지 촛불 행진을 하고 주먹밥을 나누며 80년 5월의 광주 정신을 되돌아본다.
/이연수 기자

성희롱 없는 직장 만들자

광주여성재단 젠더브리프 26호 발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정책 과제' 다뤄

광주여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내는 '젠더브리프' 제2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광주지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지난해 광주지역 직장인 1,050명(남성 416명, 여성 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분석결과, '단 1회라도 성희롱 직접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2%(191명)였다. 이 중 언어적 성희롱 피해경험은 15.5%, 시각적 성희롱 피해경험은 9.5%, 육체적 성희롱 피해경험은 8.7%로 언어적 성희롱이 제일 높게 집계됐으며 그 중에서도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초·중·고 교육기관 종사자, 비정규직, 보건 의료직 또는 교육직 종사자,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더 많

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급자, 하급자 순이었으며, 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인 경우도 9.4%에 달했다. 성희롱 발생장소는 '회사집소'와 '직장 내'가 86%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의무대상 기준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대면교육 권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의 지방 이양 등을 제안했다.
지역차원에서는 ▲광주지역 내 교육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영세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성희롱 관련 제도운용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기업 성희롱 업무담당자 교육지원 방안 마련 ▲표준화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제정 및 배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젠더 브리프는 광주지역 성평등정책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총 6면씩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김혜순 시인, 5·18문학상 수상 사양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혜순 시인이 수상을 사양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 '피어라 돼지'를 집필한 김 시인이 수상을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
김 시인은 "5·18 정신의 무게를 생각할 때 정중히 사양한다"고 재단에 전했다.
5·18재단은 김 시인의 뜻을 존중해 올해 5·18문학상 본상 수상작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달 발표된 5·18문학상에서 심사위원들은 "고통과 재난으로 뒤덮인 지금 세계에서 언어로서 말이 어떻게 공공 영역을 최고의 수준에서 보여준 시집"이라며 '피어라 돼지'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올해 5·18문학상 신인상에는 시 부문 이은정 '흑백', 소설 부문 최지영 '그리고 신발을 위한 냉장고', 동화 부문 정미영 '레벨업'·박수진 '유통기한 친구'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후 7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보람 기자

조계종, 오늘부터 하안거

종정 진제 스님 "대오견성의 다짐 갖자"



대한불교 조계종은 10일부터 사찰별로 일제히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간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범어를 발표하고 "수행자들은 이번 결제에 반드시 대오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용맹심을 먼저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거란 여름철 3개월과 겨울철 3개월간 전국 교단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진제 스님은 "결제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모든 번연 인연에 얽매임)을 끊고, 시비분별은 내려놓고 파역을 향해 나아가는 화살처럼 오직 대오견성만을 목표로 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에 나서는 장수가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듯이 선불장에 임하는 수행자들은 이번 결제에 반드시 대오견성하고 말겠다는 의지와 용맹심을 먼저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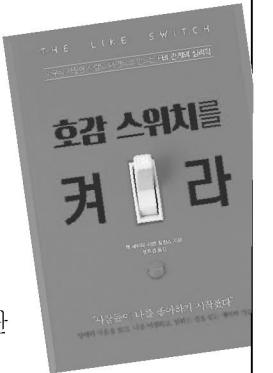
또 스님은 "간화선(看話禪)의 생명은 의심이니, 그 의심은 화두에 대한 믿음이 철저할 때 의심이 생기게 된다"며 "화두를 쟁기고 의심하고, 쟁기고 의심하고 이렇게 예를 쓰고 노력하면 진(眞)의심이 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때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직 화두 의심만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 년이고 지속되다가 보는 참나 듣는 참나에 깨치게 되는 것"이라며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쟁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일체(一切處)에 화두를 쟁기고 의심하는 것이 화두참선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연함뉴스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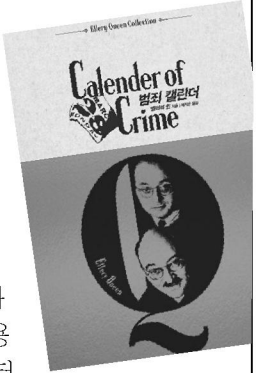
사람 마음 훑치는 비법서

◇호감 스위치를 켜라=전직 FBI 특별수사관인 저자 잭 셰이퍼는 FBI의 전략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어와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하는 비언어적 신호들, 무심한 듯 교묘하게 연출된 심리 전략들, 결정적 순간에 효과를 발휘하는 공감의 언어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다양한 법칙들, 호감의 정도를 알아채고 발전시키는 실용적 도구들을 설명해준다. 평소 대인 관계가 서툴다고 여겨온 사람들은 무작정 보고 따라해 보길 바란다.
세종서적, 348쪽, 1만6,000원.



20세기 최후의 미스터리 추리 소설

◇범죄 캘린더=주인공 엘리러 퀸과 타자수 니키 포터가 한 달에 한 권씩, 모두 12권의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로 추리소설 작가인 저자 엘리러 퀸이 1952년에 발표한 단편집 '범죄 캘린더'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출간된 책이다. '대통령의 5센트 은화 모험', '추락한 전사의 모험', '황제의 주사위 모험', '황태자 인형의 모험' 등 라디오 드라마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12편을 엄선했다. 등장인물로는 주인공 엘리러 퀸과 리처드 퀸 경감, 펄리 경사, 프라우티 경사의 정도가 활용됐으며, 국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새로운 인물 니키 포터가 추가됐다. 이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스토리와 속도감 넘치는 사건 전개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검은숲, 496쪽, 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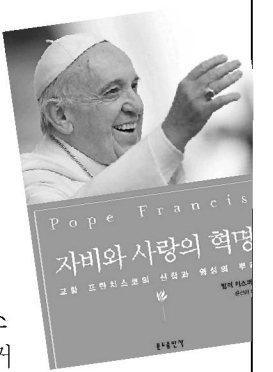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의 역할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저자 이상현은 "불교는 신을 조물주로 삼고 생명은 신의 피조물로 여기는 기독교와 다른 관점을 보여줄 것이 분명하다"며 불교는 다른 종교보다 생명과학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생명과학과 장기 이식의 문제를 통해 보시행과 불살생의 문제를 다루고,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분석하며 해탈의 개념을 설명하는 등 불교적 세계관을 근거로 첨단과학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살림, 272쪽, 1만5,000원.



교황 프란치스코의 신학과 영성 뿌리 탐구

◇자비와 사랑의 혁명=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후 이른바 '프란치스코 현상'이 일어났다. 많은 이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열광하지만 한편에서는 그에게 신학적 무게가 없다고 비판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신학적 노선에서 가장 닮아 있다고 알려진 저자 발터 카스파 추기경이 이 프란치스코 현상에 신학적으로 접근한다. 프란치스코 신학의 근원은 '자비와 사랑'이다. 복음과 가톨릭 전통에 뿌리를 둔 '자비와 사랑의 신학'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발터 카스파는 "주교이자 순교자였던 키르리아누스는 순수하고 거룩한 동정녀인 교회를 주창한 노바티아누스에 맞서 자비로운 어머니인 교회를 주창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키르리아누스의 교회상에 심취했다"고 설명한다.
분도출판사, 176쪽, 1만2,000원.
/연함뉴스



사고, 투자가치 전망있는 물건, 매매. 친절상담 H. 010 - 3605 - 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

거문도, 팬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1 - 1번지 - 49평
- 1260 - 2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상담후 결정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광양, ㄷ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라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능)
- 주인직매
-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